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AI 관련 일반지역 가금산물 수매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확산으로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이동

제한 지역 외의 일반지역 생산농가 등의 체화물량 해소를 통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리·육계·토종닭을 수매기로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종란과 종계를 일정수준 폐기 처리할 계획이며, 가금산물의 재고 누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계열업체와 계란집하장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상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매기간은 수매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수매가격은 수매당일 전주의 주간산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조치로 일반지역 생산농가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 닭,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소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수매물량: 15,500수(오리 2,800천수)
- ▶ 수매대행기관: 농협중앙회
- ▶ 수매기준: 수매시작일 현재 사육수수 이내에서 수매

검역원 소식



제3차 역학조사위원회(가금분과) 중간검사 결과 발표

▶ 금번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HPAI 바이러스(H5N1)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초기 발생한 5곳(김제, 정읍, 영암, 논산, 평택 지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금번 분리된 바이러스는 2003년도와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됨.

▶ 금번에 분리된 바이러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체유래 바이러스와도 다른 것으로 확인됨.

▶ 금번에 분리된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clade)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와 일본 아키다현의 죽은 백조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김제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와 일본 아키다현에서 분리한 AI 바이러스는 모든 유전자에서 99.7%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03/'04, '06/'07, '08년)와 일본('04, '07, '08년)에서 지금까지 3차례 발생한 예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것을 볼 때 양국의 공통유입 원인으로 철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되었다.

금번에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위험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분석을 의뢰해 놓은 것을 확인함(4.22 의뢰)

이에 반론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하여 검역원측은 이번에 분리된 AI 바이러스는 clade 2.3.2형으로 clade 2.3형의 아형에 해당되지만, 실제 인도네시아(clade 2.1) 및 베트남(clade 1 및 clade 2.3.4)에서 인체감염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와 다른(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지난 5.16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역학조사위원장이인 경북대 김기석 교수가 별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소식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유전자를 통한 닭·오리 개발연구에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닭과 오리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에서부터 치료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바이러스 침투에서 대항 및 증식억제에 관련된 유전자(TLR3, TLR7, IFN α , IFN β , IFN γ , Mx, MHC class I, MHC class II) 총 8개 유전자의 서열변이를 조사하여, Mx 유전자의 변이좌위 156군데를 발굴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저항성 유전자 탐색연구 ▲Chicken 세포주를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 저항성 후보 유전자군의 항바이러스성 검증연구 ▲가축의 전염병 질병(브루셀라 또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면역 제어기술개발 ▲RNA 간섭기술을 이용한 악성질병 저항성 유전자 knock-down 세포주 개발 및 형질 전환 모델동물 생산 등 총 4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연구에 6억4000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연구인력 또한 기존 2명에서 8명으로 4배로 확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내부에 유전물질로 단일 가닥의 RNA를 가지고 있으며 항원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Hemagglutinin 16종과 Neuraminidase 9종이 있다. 이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은 총 144개나 될 뿐 아니라 RNA바이러스의 경우 스스로 변이가 가능해 백신개발 및 활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저항성을 갖

는 유전자를 찾으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 Mx가 1979년 Heller에 의해 처음으로 생쥐에서 발견되었고, 이 Mx 유전자가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저항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유일한 유전자이며,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발병 및 저항하는 세포유전학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세포내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한다.

농촌진흥청 박응우 박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닭과 오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병한 집단에서 생존한 개체와 죽은 개체의 시료 확보와 이를 다루기 위한 특별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하여 siRNA 방법을 활용한 체외 세포배양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이러스저항성 후보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고 저항성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선발하여 직접 감염시험을 통한 검증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닭과 오리 개발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오는 13일~17일까지 국제 축산연구소 Hanotte박사를 초청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외에서의 맹독성 AI 저항성유전자 기능구명에 대해 집중토론을 할 계획이다.

Hanotte 박사는 최근 이태리 연구진들과 맹독성 AI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강한 가금계통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강한 닭과 오리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질병과 관련한 생명공학 연구에 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